

여학생처에 정식으로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나는 이 수업을 철회해야할지 말아야할지가 고민이 되었다. 철회한다면 신고한 학생이 누구인지 뻔히 드러날 것이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별 것도 아닌 일'을 크게 확대시킨 신고자'임을 숨긴 채 내내 불편하게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다. 철회하리라 결심했다. 가도 곧 수업을 들어가기로 마음을 바꾸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바꾸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 입장이 너무 답답해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작가에게 털어놓았고, 그 작가는 기사를 한 번 써보겠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 줄 것이라고 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 사건의 결말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다. 요구사항인 3월 11일과 4월 1일의 수업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도 큰 수확이지만 애초에 내가 신고를 하면서 가장 망설이고 힘들었던 부분인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앞으로 다른 수업, 다른 학생들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일 것 같았다. 기사를 써도 좋다고 말했고 그 작가는 먼저 기사를 나에게 보여 주었고 정식 기사로 채택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강사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가 연결되어 한 시간 이상 통화했다고 한다.

나는 통화 직후 그 작가로부터 전화 통화의 대강의 내용과 다음날 4월 8일 수업시간에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기사화 하지 않는다면 수업시간에 강사가 사과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해결이 의외의 방법으로 풀렸다고 생각을 했다.

10분 늦게 들어온 강사는 들어오자마자 "수업 그만두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여학생처로부터 '실명'으로 신고한 학생의 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과하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라고 말했다. 수업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만 두는 이유가 '실명'으로 신고한 학생이 다시 신고해 들어온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기사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모호하게 흐렸다.

강사의 사과를 확인하러 들어왔던 그 작가는 '협박'이라는 말에 흥분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학생들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일어나 말하는 사람이 학생인지 기자인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모르는 눈치였다. 그 작가는 "통화중에 우시면서 애원하길래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였다.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면 기사거리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약속했던거 아니냐. 협박이라고 했는데 그 협박이 무엇이나" 고 물었다. 강사는 "우리학교 학생이냐?"고 물었고 그 작가는 "어제 통화한 기자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왜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왔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강사의 말에 동의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 작가는 "어제 들어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말했고 강사는 "그렇더라도 학생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갑자기 사건의 초점은 갑작스럽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의를 그만두는 강사가 아니라, 예의 없이 남의 강의실에 들어온 한 기자로 모아졌다. 지난주에 '신고한 학생 때문에 수업 듣는 다른 학생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남학생이 먼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자 이어서 강사도 나갔다. 그 작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서 사과를 하고 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야, 이거 처음 시작한 개는 누구냐?"라며 강사를 옹호했고 여학생들도 '수업권 침해'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한 인터넷 신문의 기자가 학생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의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강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를 희화화 시켰는데, 재차 신고하니 강의를 그만두고 도망갔다." 는 점이다. 그 작가가 강의실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생들 말대로 '수업권'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강사의 잘못된 언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 외부인과 내부인이 있을 때, 당연히 학생들은 내부인인 강사의 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더구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신고자마저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강사를 모함한 사람이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나갈 생각이다.